

초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

문덕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 Early stage nurses'

Duck-Hee Moon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초보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대상자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 광역시 소재 3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 14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하도록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를 구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3.13점(±0.46), 자기효능감은 3.64점(±0.64),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2.95점(±0.50)이었다. 초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유무가 자아탄력성에, 임상경력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항목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 있었으며($r=.305, p<.001$),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r=.279, p=.001$)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초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병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간호사의 직업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reports a descriptive correlation among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and shows that there is a decrease of turnover intention in early stage nurse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July 7, 2015.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45 nurses working in one of three general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mean values were as follows: ego-resilience, 3.13 (±0.46); self-efficacy, 3.64 (±0.64);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2.95 (±0.50).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rly stage nurses, marital status significantly affected ego-resilience, and total career significantly affected professional self-concep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es ($r=.305,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es ($r=.279, p=.001$).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enhance early stage nurses'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Keywords : Ego resilience,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Relationship, Self effica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환경에서도 로봇수술, 원격진료 등 다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는 여전히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지속

본 연구는 2015년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uck-Hee Moon(Gwangju Univ.)

Tel: +82-62-670-2635 email: duckimoon@naver.com

Received July 22, 2016

Revised (1st August 3, 2016, 2n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보호자 및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8.5%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전체 이직자의 35%로 경력간호사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편이다[2]. 간호사의 경력별 이직의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3]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간호사는 경력 2년 미만인 초보간호사들이었다. 이직관련 이유로는 복합적인 업무의 부담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이유로 상사나 동료 또는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의 갈등을 지적하였다[4]. 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간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충분한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 따라서 간호사가 업무의 숙련도를 갖추 수 있도록 초보간호사때부터 간호사의 자질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의 교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적응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피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며 또한 정서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6].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한다[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 신입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낮았고[9],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과정,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10].

자기 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이며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11]. 자기효능감은 임상간호사의 연구 활동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며 간호현장에서 행동하는 간호사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12].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실패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13].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해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전문적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 이는 직종에 대한 전문성 또는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주로 1-3년차 사이의 기간에 형성된다[15].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진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되며 다른 의료 직종과 잘 협력하며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6].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만족과 관련된 변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만 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간호사의 이직이 초보 간호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경력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병원 상황에 대한 보다 빠른 적응을 격려하며 간호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초보간호사를 위한 병원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보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일 광역시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매년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종합병원 중 연구를 허락하는 3개의 병원에 근무하는 3년 이하의 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총 13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무응답이 있는 5부를 제외하여 총 145부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일 광역시 소재 3개의 종합병원에 연구 협조를 구하고 간호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병동 관리자에게도 연구 진행에 대한 설명 후 허락을 구하였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에 한하여 자필 서명 후 설문지에 자기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개인 정보는 연구 후 즉시 폐기 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원하지 않은 경우 중도 포기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설문 조사 후 설문지는 회송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 통제 수준을 조절하여 적응하는 능력으로[6]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996)[6]이 개발한 Ego Resilience scale을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이며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Yoo와 Shim[17]의 연구에서는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였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정해진 업무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는 Shere,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과 Jacobs(1982)[18]이 개발한 Self Efficacy Scale을 Hong(1995)[11]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2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Hong[1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신적인 지각을 의미하며[15], Arthur(1990)[15]이 개발한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strument를 Seo(2007)[19]가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전문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3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Seo[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4.7세였다. 성별은 남성이 8.3%(12명), 여성이 91.7%(133명)였으며 종교 유무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9%(81명)로 좀 더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96.6%(14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육수준은 3년제 졸업이 24.1%(35명), 4년제 졸업이 73.1%(106명), 대학원이 2.8%(4명)였다. 병원 경력은 1년 이하가 35.2%(51명), 1년에서 2년 사이가 53.1%(77명) 이었으며 2년 이상 3년까지는 11.7%(17명)였다. 간호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응답이 45.5%(66명), 보통이 46.2%(67명), 나쁘다는 응답이 8.3%(12명) 였다. 직장 내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응답이 50.3%(73명), 보통이 46.2%(67명), 나쁘다는 응답이 3.4%(5명)였다. 건강상태는 3.4%(5명)를 제외하고는 중간 이상이라고 답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45)

Variables	Categories	M±SD/n(%)
Age		24.7±1.24
Gender	Male	12(8.3)
	Female	133(91.7)
Religion	Yes	64(44.1)
	No	81(55.9)
Marital status	single	140(96.6)
	Married	5(3.4)
Education level	College(3 year)	35(24.1)
	Bachelor(4 year)	106(73.1)
	Master degree	4(2.8)
Total career (year)	≤1	51(35.2)
	1-2	77(53.1)
	≥2	17(11.7)
Satisfaction of job	High	66(45.5)
	Middle	67(46.2)
	Low	12(8.3)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a colleague	High	73(50.3)
	Middle	67(46.2)
	Low	5(3.4)
Health state	Good	88(60.7)
	Moderate	52(35.9)
	Bad	5(3.4)
Total		145(100.0)

3.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의 평균 점수는 최대 4점 중에서 3.13(±0.46)점 이었다. 자기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최대 5점 중에서 3.64(±0.64)점이고 자기효능감의 하위 개념의 세부 항목별 점수는 일반적 효능감이 3.39(±0.50)점, 사회적 효능감이 3.38(±0.59)점 이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 점수는 최대 4점 중에서 2.95(±0.50)점 이었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개념의 세부 항목별 점수는 전문적 실무영역이 2.97(±0.33)점, 만족감 영역이 2.86(±0.41)점, 의사소통 영역이 2.92(±0.47)점 이었다 (Table 2).

Table 2. Level of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N=145)

Variables	Mean±SD	Minimum	Maximum	
Ego Resilience	3.13±0.46	2.0	4.0	
Self Efficacy	General Efficacy	3.39±0.50	2.4	5.0
	Social Efficacy	3.38±0.59	1.8	5.0
	Total	3.64±0.64	2.0	5.0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Practice	2.97±0.33	2.1	3.8
	Satisfaction	2.86±0.41	1.9	3.9
	Communication	2.92±0.47	1.50	4.0
Total	2.95±0.50	2.0	4.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결혼 유무에서 미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6, p=.0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임상경력의 차이에서 의의가 있었다($F=4.38, p=.014$). 사후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3년까지의 임상 경력을 가진 군이 1년에서 2년 사이의 임상 경력을 가진 군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세부 영역 중 전문적 실무($r=.305,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279,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세부 영역에서는 전문적 실무($r=.432, p<.001$), 만

Table 3. Difference of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Variables	Categories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PSCNI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 (year)	21-23	3.1±0.45	0.65 (.526)	3.7±0.65	0.19 (.830)	2.9±0.59	.023 (.973)
	24-26	3.2±0.45		3.6±0.63		2.9±0.48	
	≥27	3.1±0.67		3.7±0.91		2.9±0.61	
Gender	Male	3.2±0.49	0.61 (.545)	3.6±0.64	-0.07 (.942)	3.2±0.47	1.92 (.057)
	Female	3.1±0.46		3.6±0.65		2.9±0.51	
Religion	Yes	3.1±0.46	-0.68 (.495)	3.7±0.68	1.75 (.083)	2.9±0.46	0.60 (.547)
	No	3.2±0.47		3.6±0.61		2.9±0.55	
Marital status	single	3.2±0.46	-2.16 (.033)*	3.7±0.64	-1.92 (.057)	2.9±0.51	-0.21 (.831)
	Married	2.7±0.27		3.1±0.55		2.9±0.42	
Education level	College(3 year)	3.1±0.47	0.20 (.816)	3.7±0.68	1.65 (.196)	2.9±0.55	0.21 (.810)
	Bachelor(4 year)	3.1±0.46		3.6±0.59		2.9±0.48	
	Master degree	3.0±0.41		3.1±1.03		2.9±0.25	
Total career (year)	≤1 ^a	3.1±0.45	0.01 (.986)	3.7±0.47	0.71 (.494)	3.0±0.50	4.38 (.014) [†]
	1-2 ^b	3.1±0.48		3.6±0.64		2.8±0.46	
	≥2 ^c	3.1±0.45		3.7±0.70		3.1±0.54	
Satisfaction of job	High	3.2±0.47	1.29 (.279)	3.8±0.66	3.02 (.052)	2.9±0.55	2.75 (.068)
	Middle	3.1±0.46		3.5±0.59		2.9±0.45	
	Low	3.2±0.39		3.8±0.72		3.3±0.50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a colleague	High	3.2±0.43	1.37 (.257)	3.7±0.67	2.21 (.113)	3.0±0.52	2.05 (.133)
	Middle	3.1±0.49		3.5±0.62		2.9±0.49	
	Low	3.3±0.45		3.9±0.42		3.2±0.27	
Health state	Good	3.1±0.44	0.06 (.938)	3.7±0.68	0.37 (.695)	3.0±0.52	2.21 (.114)
	Moderate	3.1±0.52		3.6±0.61		2.9±0.49	
	Bad	3.2±0.27		3.7±0.45		2.6±0.42	

PSCNI=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p<.05, **p<.01, ***p<.001

죽감($r=.462, p<.001$), 의사소통($r=.311, p<.001$) 모든 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세부 영역인 일반적 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412,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하위 영역 중 전문적 실무($r=.587, p<.001$)

와 만족감($r=.605, p<.001$), 의사소통($r=.502,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 중 전문적 실무($r=.480, p<.001$)와 만족감($r=.353, p<.001$), 의사소통($r=.258, p=.002$)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for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N=145)

Variables	Ego Resilience r(p)	Self efficacy r(p)	General self efficacy r(p)	Social self efficacy r(p)	PSCNI r(p)	PSCNI practice r(p)	PSCNI satisfaction r(p)	PSCNI communication r(p)
Ego Resilience	1							
Self efficacy		1						
General self efficacy		.527 (<.001)***	1					
Social self efficacy		.622 (<.001)***	.554 (<.001)***	1				
PSCNI		.279 (.001)**	.412 (<.001)***	.143 (.086)	1			
PSCNI practice	.305 (<.001)***	.432 (<.001)***	.587 (<.001)***	.480 (<.001)***	.567 (<.001)***	1		
PSCNI satisfaction		.462 (<.001)***	.605 (<.001)***	.353 (<.001)***	.559 (<.001)***	.665 (<.001)***	1	
PSCNI communication		.311 (<.001)***	.502 (<.001)***	.258 (.002)**	.732 (<.001)***	.588 (<.001)***	.731 (<.001)***	1

PSCNI=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p<.05, **p<.01, ***p<.001

4. 고찰

본 연구는 일 광역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3(± 0.46)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Cho와 Hur[20] 연구의 3.30점보다 낮지만, 대학병원 중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와 Jung[21]연구의 3.17점과는 다소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결혼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 자아탄력성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Lee, Gu와 Kim[2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혼과 기혼 여성을 대비하기에는 기혼 여성이 5명으로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변화가 많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조절능력으로[6] 간호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역량이다. 이는 개인적인 기본 자질이나 노력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병원의 직원 복지 차원에서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간호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및 놀이, 훈련 등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간호사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4(± 0.64)점으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 Yang과 Lee[23]연구의 3.56점 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이며, 대학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4]의 3.49점 보다 높은 정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이 많고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게 나왔으며, 이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2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으나 경력 1년 정도의 차이에 따라 평균이 약간씩 상승함을 볼 수 있었다. Lee[24]의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으며,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변수로 급여수준, 교대 근무 등 병원의 외적인 조건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았을 때 간

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5(± 0.50)점으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23] 등의 연구에서 2.74점, 대학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4]의 연구에서 2.71점 보다는 높은 정도이며, 유사한 연구로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Oh, Lee와 Sung[25]의 연구 2.82점과는 비슷하다. Lee[2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이 많고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런데 11개국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한 Jang[23] 등의 연구에서는 한국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2.84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뉴질랜드의 3.39점과 1점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계 간호사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유럽이나 미주 쪽의 간호사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영역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오랜 시간차가 있는 연구들임에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간호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독자적인 역할로 간호진단을 시행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정서적 보살핌과 지지, 교육과 상담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세부 영역 중 전문직 실무($r=305, p<.001$)에서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병행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인 전문직 실무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차이가 있다. 병원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유연성을 가진 간호사는 적응 정도가 뛰어나 이직 없이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고 오랜 병원 생활 속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인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는 자아탄력성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도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전이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위의 상관관계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사가 업무에 대한 스

트레스도 낮고 이직 의도 또한 낮다는 Park[9]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본 Kim[27]의 연구에서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28]의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279, p=.001$)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4]의 연구, 전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23] 등의 연구,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Han과 Jo[29]의 연구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간호수행을 할 때 또는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경력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확고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 광역시 소재의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인 차이와 병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해 결론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초보 간호사 단계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역량을 올려주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 광역시 소재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3년 이하의 초보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모두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세부 영역 중

전문적 실무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305, p<.001$),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79, p=.001$).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이직률이 높은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부족한 역량 강화를 위해 병원 업무 적응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법 훈련, 상담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와 경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보간호사 뿐만 아니라 경력 간호사까지 확대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S. Kim.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2]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0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of nurse staffing. [cited 2011 March 9], Available From: <http://www.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accessed May, 6, 2012)
- [3] K. J. Lee, S. Y. 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1), pp. 1-15, 2011.
- [4] S. Y. Lee, E. J. Oh, K. M. Sung. "The experiences of turnover intention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pp. 168-176, 2013.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3.19.2.168>
- [5] Y. J. Kim, H. K. Song, M. A. Lee. "Perceived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head nurses' leadership, and nursing clinical competency by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7(1), pp. 96-105,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1.96>
- [6] Block, J.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7] M. S. Go. "Relations of ego-Resiliency, decision making style, and attributional style : With attachment and Life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8] S. Y. Kim. "The effect of nurse's ego-resilience on stress response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9] K.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resilience and turnover intension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10]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pp. 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341>
- [11]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12] Virginia, E. Susan, E. "Improving self-efficacy in nursing research", Clinical Nurses Specialist, 10(2), pp. 83-87, 1996. DOI: <http://dx.doi.org/10.1097/00002800-199603000-00009>
- [13] Judge, T. A. Bono, J. E. "Relationship of core self evaluation traits self esteem, generalized self 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pp. 80-92, 2001.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86.1.80>
- [14] E. Y. Choi, G. H. Kim.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nephrology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2, pp. 345-355, 2000.
- [15] Arthur D.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Australia, 1990.
- [16] B. R. Jo, E. A. Yoo, S. J. Park, A. R. Jo, S. Y. Park, D. Y. Kim.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4), pp. 1718-172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4.1718>
- [17] S. G.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pp. 189-206, 2002.
- [18] Shere,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pp. 663-671, 1982. DOI: <http://dx.doi.org/10.2466/pr0.1982.51.2.663>
- [19]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2007.
- [20] S. B. Im, M. K. Cho, N. R. Hur. "Factors to affect turnover intension of nurse: Focusing on personal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relation variabl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4), pp. 314-323, 2013.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3.22.4.314>
- [21] H. J. Cho, M. S. Jung. "Effect of empathy, resilience, self care on compassion fatigue in oncology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4), pp. 373-382, 2013.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4.373>
- [22]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pp. 3902-391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02>
- [23] H. J. Jang, S. O. Yang, M. O. Le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 efficacy according to the need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among Korean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1), pp. 110-119, 2007.
- [24] S. H.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 pp. 10-20, 2008.
- [25] E. J. Oh, S. Y. Lee, G. M. Sung. "Interpersonal relations, hop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s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pp. 491-500, 2013.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4.491>
- [26] S. J. Kim.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n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in schoolwo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2016.
- [27]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pp. 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28] G. S.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10, pp. 165-183, 2013.
- [29] E. J. Park, J. Y. Han, N. Y. Jo. "Effect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 efficacy on the job satisfac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1), pp. 191-201, 201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6.27.1.191>

문 덕 희(Duck-Hee Moon)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분만